

세계 주류시장 동향 : 맥주, 보드카

기획조사팀

맥주(Beer)

2007년과 2008년 세계 맥주시장은 대형 인수 합병이 잇따랐으며 이에 따라 세계 맥주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크고 작은 인수합병중에서도 벨기에의 인베브(Inbev)와 미국의 안호이저부시(Anheuser Busch)의 합병은 그 규모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2008년 7월 세계 최대 규모의 맥주사인 인베브는 미국내 독보적인 1위였던 안호이저부시를 인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안호이저부시-인베브(Anheuser-Busch Inbev)라는 세계 맥주시장의 25%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맥주사가 탄생하게 되었다.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2007년 총 맥주생산량은 4억 2,300만 헥토리터로 세계 2위업체인 SAB밀러(2억 2,370만 헥토리터) 보다 두배 가량이나 앞섰다. 또한 주요 거점시장이 나누어져 있던(인베브 : 유럽, 남미 | 안호이저부시 : 미국) 양사가 합병함에 따라 미국, 유럽, 남미, 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 글로벌기업으로의 면모를 확실히 갖추게 되었으며, 중국 및 러시아 등 신흥맥주시장으로의 사업강화 역시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안호이저부시는 중국의 칭다오맥주(Tsingtao)와 하얼빈맥주(Harbin)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베브는 푸진안 세드린맥주(Fujian Sedrin)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내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대규모 인수합병으로는 몰슨쿠어스(Molson Coors)와 SAB밀러(SABmiller)의 미국내 사업 합병이 있다. 양사는 안호이저부시가 부동의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맥주시장에서의 사업강화를 위해 이번 합병을 추진하였다.

한편 세계 3, 4위 맥주사인 네덜란드의 하이네켄(Heineken)과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sberg)는 영국의 스코티시&뉴캐슬(Scottish & Newcastle)을 공동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칼스버그는 이번 인수를 통해 스코티시&뉴캐슬이 가지고 있던 BBH(Baltic Beverage Holdings)의 지분 50%와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BBH는 러시아 최대의 맥주사이며,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발티카(Baltika)' 맥주를 생산하고 있어, 신흥맥주시장인 러시아 진출을 추진하는 칼스버그에게 있어 큰 호재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맥주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러시아이며, 중국이 그 뒤를 이었다. 2007년 러시아의 맥주소비량은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중국은 12.4%를 기록했다. 이 두 국가는 2007년 세계맥주소비 전년대비 증가량의

2007 세계 상위 20개 맥주 제조사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회 사 명	본사위치	판 매 량		증 감	점유율(세계시장)	
			2006	2007	06-07	2006	2007
1	Anheuser-Busch Inbev	벨 기 예	405.8	423.0	4.2%	25.4%	25.3%
2	SABMiller	영 국	216.4	232.7	7.5%	13.5%	13.9%
3	Heineken	네덜란드	158.9	166.8	5.0%	9.9%	10.0%
4	Carlsberg Breweries	덴 마 크	101.6	116.9	15.0%	6.4%	7.0%
5	Molson Coors Brewing	미 국	94.0	94.4	0.4%	5.9%	5.6%
상위 5개사 소계			976.8	1,033.7	5.8%	61.1%	61.8%
6	China Resources	중 국	53.1	69.4	30.7%	3.3%	4.1%
7	Grupo Modelo	멕시코	49.9	51.6	3.4%	3.1%	3.1%
8	Qingdao Brewing	중 국	45.4	50.5	11.2%	2.8%	3.0%
9	Beijin Yanjing Beer Group	중 국	35.3	40.2	14.0%	2.2%	2.4%
10	FEMSA	멕시코	37.7	39.9	6.0%	2.5%	2.5%
상위 10개사 소계			1,198.1	1,285.3	7.3%	75.0%	76.9%
11	Kirin Brewery	일 본	37.4	38.2	1.9%	2.3%	2.3%
12	Asahi Brewery	일 본	29.6	29.3	-1.0%	1.9%	1.8%
13	Guinness Brewing(Diageo)	영 국	20.6	21.0	2.0%	1.3%	1.3%
14	Efes Beverage Group	터 키	18.8	20.9	11.2%	1.2%	1.2%
15	Chongqing	중 국	17.5	20.5	17.0%	1.1%	1.2%
상위 15개사 소계			1,322.0	1,425.1	7.0%	82.7%	84.6%
16	Kingstar Beer Group	중 국	16.6	17.6	6.0%	1.0%	1.1%
17	San Miguel Corp	필 리 핀	16.1	17.4	7.8%	1.0%	1.0%
18	Radeberger Gruppe	독 일	14.7	14.4	-2.2%	0.9%	0.9%
19	Cerveceria Polar	베네수엘라	13.7	13.7		0.9%	0.8%
20	Suntory	일 본	13.1	13.3	1.7%	0.8%	0.8%
상위 20개사 소계			1,396.2	1,491.4	6.8%	87.4%	89.2%

※ 자료 : Impact Databank

76%를 차지하며 세계 맥주소비증가를 이끌었다.

중 국 : 지속적인 맥주소비 증가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맥주소비국(총 소비량 기준)에 오른 중국은 2007년 12.4%의 소비증가로 미국과의 격차를 벌렸으나, 2008년 상반기에는 소비증가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는 지난 5월에 쓰촨에서 발생한 지진, 맥주가격인상, 굿은 기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인들은 세계 최대의 맥주소비국이며 향후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중국의 맥주소비량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2억 2,320만 헥토리터로 2억 3,010만 헥토리터였던 미국에 뒤쳐져 있었으나, 2007년에는 3억 8,120만 헥토리터를 소비하여 2000년에 비해 소비량 변화가 별로 없었던 미국(2억 4,070만 헥토리터)에 비해 크게 앞서(약 1억 4,000만 리터) 있다.

한편 중국 CRB(China Resource Snow

2007 세계 상위 20개 맥주 제품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제 조 사	본 사 위 치	판 매 량		증 감	점유율(세계시장)	
			2006	2007	06-07	2006	2007
1	Snow	China Resources	30.4	51.2	68.6%	1.9%	3.1%
2	Bud Light	Anheuser-Busch Inbev	48.0	49.2	2.4%	3.0%	2.9%
3	Budweiser	Anheuser-Busch Inbev	39.5	38.4	-3.0%	2.5%	2.3%
4	Skol	Anheuser-Busch Inbev	33.5	35.4	5.5%	2.1%	2.1%
5	Corona	Grupo Modelo	31.7	32.3	2.0%	2.0%	1.9%
상위 5개 제품 소계			183.1	206.4	12.7%	11.5%	12.3%
6	Heineken	Heineken	25.1	28.0	11.5%	1.6%	1.7%
7	Brahma	Anheuser-Busch Inbev	25.3	26.6	4.9%	1.6%	1.6%
8	Miller Lite	SABmiller	21.3	21.8	2.2%	1.3%	1.3%
9	Coors Light	Molson Coors Brewing	19.7	20.5	3.9%	1.2%	1.2%
10	Tsingtao	Qingdao Brewing	16.3	19.3	18.4%	1.3%	1.2%
상위 10개 제품 소계			290.9	322.5	10.9%	18.2%	19.3%
11	Yanjing	Beijin Yanjing Beer Group	15.0	17.2	14.5%	0.9%	1.0%
12	Asahi Super Dry	Asahi Brewery	17.4	17.0	-2.3%	1.1%	1.0%
13	Baltika	Carlsberg Breweries	11.6	15.7	35.6%	0.7%	0.9%
14	Carlsberg	Carlsberg Breweries	12.2	12.8	5.0%	0.8%	0.8%
15	Antarctica Pilsen	Anheuser-Busch Inbev	12.2	12.7	3.7%	0.8%	0.8%
상위 15개 제품 소계			359.3	397.7	10.7%	22.5%	23.8%
16	Polar	Cerveceria Polar	12.7	12.7	-0.5%	0.8%	0.8%
17	Sedrin	Anheuser-Busch Inbev	10.1	12.1	20.4%	0.6%	0.7%
18	Guinness	Guinness Brewing(Diageo)	10.8	11.0	2.0%	0.7%	0.7%
19	Natural Light	Anheuser-Busch Inbev	10.6	10.7	1.2%	0.7%	0.6%
20	Amstel	Heineken	12.2	10.6	-13.1%	0.8%	0.6%
상위 20개 제품 소계			415.7	454.8	9.4%	26.0%	27.2%

※ 자료 : Impact Databank

Breweries:화륜설화맥주사)의 ‘CR스노우(CR Snow:화륜설화)맥주는 2007년 5,120만 헥토리터가 판매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맥주제품이 되었다. CRB는 세계 최대 맥주사중 하나인 SAB밀러가 중국시장진출을 위해 1994년 중국의 화륜창업유한공사(China Resource Enterprise Limited)와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SAB밀러가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다.

2005년 세계맥주제품 판매량별 순위에서 10위

를 기록했던 ‘CR스노우’는 2006년 4위에 올랐으며, 2007년에는 1위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는 일찌감치 중국맥주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준비한 SAB밀러의 사업전략이 대성공한 사례이다. 불과 10년전만해도 중국 북부지방에서만 마시는 변방맥주였던 ‘CR스노우’를 자국내의 칭다오맥주, 옌징맥주 등을 제치고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맥주제품으로 성장시킨 SAB밀러의 성공신화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2007 세계 상위 10개 맥주 소비국가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국 가	소 비 량				소비량 점유율	
		2000	2005	2006	2007	05-06	06-07
1	중 국	223.2	309.3	339.0	381.2	9.6%	12.4%
2	미 국	230.1	234.7	237.9	240.7	1.3%	1.2%
3	러 시 아	55.3	87.2	96.0	110.1	10.1%	14.6%
4	브 라 질	82.6	91.4	95.4	102.2	4.4%	7.1%
5	독 일	103.1	95.0	96.5	93.1	1.6%	-3.6%
상위 5개 국가 소계		694.2	817.6	864.8	927.1	5.8%	7.2%
6	일 본	71.0	63.3	63.4	62.7	0.2%	-1.1%
7	맥 시 코	50.4	56.2	59.4	61.9	5.7%	4.2%
8	영 국	57.0	56.4	55.6	53.1	-1.5%	-4.4%
9	폴 란 드	22.3	30.7	32.5	34.9	5.7%	7.5%
10	스 페 인	29.2	34.6	35.0	33.2	1.1%	-5.2%
상위 10개 국가 소계		924.0	1,058.8	1,110.6	1,172.9	4.9%	5.6%
그외 국가		436.3	478.8	487.2	499.2	1.7%	2.5%
총 계		1,360.3	1,537.7	1,597.8	1,672.1	3.9%	4.7%

※ 자료 : Impact Databank

며, 세계 메이저 맥주업체들은 앞다투어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다.

일본 : 중국에 이어 아시아 2위 맥주소비국인 일본(2007년 기준 세계 6위)에서는 여전히 맥주 시장포화로 인한 시장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일본의 맥주소비량은 6,270만 헥토리터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다.

일본 맥주사별로는 기린(Kirin)과 산토리(Suntory)의 경우 2007년 판매량이 전년대비 각각 1.9%, 1.7% 증가한 반면, 아사히(Asahi)는 1% 감소하였다.

아사히맥주는 자국내 판매부진 만회를 위해 해외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 맥주시장 진출을 위해 러시아 맥주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BBH와의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 세계 3위 맥주소비국 러시아에서는 2007년 맥주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맥주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전년대비 14.5%증가)

2007년 러시아의 1인당 연간 맥주소비량은 77리터로 전년대비 15.2%증가했으며, 특히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의 대도시에서 러시아 맥주소비증가를 이끌고 있다. 러시아 최대의 맥주 제조사인 BBH는 러시아 맥주시장의 38%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22%의 판매신장을 기록했다. 특히 BBH의 주력제품인 '발티카'는 2007년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이 판매된 맥주제품으로 기록되었다.

스코티시&뉴캐슬 인수를 통해 BBH의 경영권을 보유하게 된 칼스버그는 러시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로의 사업확장을 추진중에 있다.

러시아내 2위 맥주사는 인베브의 러시아 현지

법인인 SUN 인베브(SUN Inbev)로 2007년 2,120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하여, 러시아 맥주시장점유율 19.3%를 기록했으며, 3위는 하이네켄의 러시아 현지법인 하이네켄 러시아(Heineken Russia)로 1,500만 헥토리터를 판매하였다.(시장점유율 13.7%)

미국 : 세계 2위 맥주시장인 미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맥주소비량이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동안 세계 맥주소비량 1위였던 미국은 2002년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 그러나 3위 러시아 보다 2배 이상 많은 맥주가 소비되고 있어 2위 자리 수성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미국 맥주산업은 금년 들어 두번의 큰 변화를 겪었다. 올 6월 SAB밀러와 몰슨쿠어스가 미국내 사업을 합병하였으며, 곧바로 미국 1위 맥주사인 안호이저부시가 인베브에 인수되었다.(안호이저부시, SAB밀러, 몰슨쿠어스가 미국맥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세계적인 맥주제품인 '버드와이저(Budweiser)'를 생산하는 안호이저부시는 미국 주류산업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기업으로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맥주를 판매하는 기업이였다. 그러나 암베브(AmBev)와 인터브루(Interbrew), SAB밀러 등 경쟁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사업강화에 밀려 1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결국 안호이저부시는 2008년 7월 52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인베브에 회사를 매각하게 되었다.(브라질의 암베브와 벨기에의 인터브루는 2004년 합병을 통해 인베브를 탄생시키며, 안호이저부시를 제치고 세계 1위 맥주사에 올랐다.)

서유럽 : 2006년 월드컵특수로 인해 맥주소비가 증가했던 독일에서는 2007년 맥주소비가 다시 감소하였다.(전년대비 3.6% 감소)

독일의 1인당 맥주소비량은 여전히 세계 최대 수준이지만, 최근 들어 주점내 금연 의무화 실시 및 기후변화로 인해 맥주소비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영국의 맥주소비 역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다.(전년대비 4.4%감소)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주점내 금연의무화의 영향으로 주점 및 음식점에서의 주류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금연제도는 소비자의 발길을 주점이 아닌 마켓으로 돌리게 하였고, 이 영향으로 2007년 영국에서는 약 1,400개의 주점이 폐업을 한 반면 대형슈퍼체인 의 주류판매는 증가하고 있다.

기타 서유럽국가중에는 스페인의 맥주소비가 전년대비 5.2% 감소한 반면 폴란드의 경우 7.5% 증가하며 스페인을 제치고 맥주소비 세계 9위 국가에 올랐다.

브라질 : 2007년 브라질에서는 1억 220만 헥토리터의 맥주가 소비되었다.(세계 4위-남미국가중에서는 브라질이 유일하게 세계 10위안에 든 국가이다.) 브라질 맥주시장은 안호이저부시-인베브가 점유율 6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사의 '스콜(Scol)', '브라마(Brahma)'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브라질 맥주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일부 맥주제조사들은 브라질 사업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멕시코 최대 맥주제조사인 펌사(Femsa)는 올해 7억 3,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와 브라질에 맥주제조시설을 신설하고 유통망 역시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러시아, 브라질, 폴란드 등 신흥 맥주시장의 연간 10% 이상의 성장세에 힘입어 세계 맥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서유럽 등 기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사업을 통해 세계 맥주시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보드카(Vodka)

2007년 세계 보드카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3% 증가한 3억 4,300만상자(1상자=9Liter)를 기록하며, 지난 몇 년간 이어온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요 보드카 소비국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개척되었던 시장에서 역시 소비가 늘고 있어 보드카는

이미 세계적인 주류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세계 1위 보드카 소비국인 미국의 경우 경제악화에도 불구하고 보드카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로 이는 보드카 시장이 확실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칵테일 베이스로서의 정착과 함께 세계 주류시장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당분간 보드카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보드카시장은 러시아 및 동유럽에서 소비되고 있는 저가의 로컬 보드카와 미국,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는 고가의 프리미엄 보드카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유럽에서의 인기로 힘입어 프리미엄 보드카판매가 크게 늘고 있으나 소비량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로컬 보드카

2007 세계 상위 15개 프리미엄 보드카 제품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5	2006	2007	06-07
1	SMIRNOFF	Diageo	21.4	22.6	24.3	7.6%
2	ABSOLUT	Pernod Ricard	9.2	9.9	10.7	8.8%
3	GREY GOOSE	Bacardi	2.3	3.0	3.6	20.0%
4	STOLICHNAYA	SPI/Pernod Ricard	2.6	3.0	3.3	8.5%
5	SKYY	Skyy Spirit (Campari)	2.4	2.7	2.9	7.5%
	상위 5개 제품 소계		37.8	41.4	44.8	8.8%
6	FINLANDIA	Brown-Forman	2.1	2.3	2.7	19.5%
7	SOBIESKY	Belvedere	1.7	2.1	2.5	16.0%
8	RUSSIAN STANDARD	Russian Standard Co	1.0	1.4	1.9	40.0%
9	KETEL ONE	Nolet Distilleries	1.7	1.9	1.9	0.5%
10	WYBOROWA	Pernod Ricard	0.9	1.2	1.8	52.1%
	상위 10개 제품 소계		45.2	50.0	55.5	11.2%
11	BOLS	Bols Royal Distilleries	1.6	1.6	1.8	11.1%
12	GLEN'S	Glen Catrine	1.5	1.7	1.8	1.7%
13	ERISTOFF	Bacardi	1.4	1.5	1.7	13.0%
14	SVEDKA	Constellation Spirits	0.7	1.1	1.6	46.4%
15	LUKSUSOWA	Pernod Ricard	1.2	1.1	1.5	29.4%
	상위 15개 제품 소계		51.6	57.0	63.8	12.0%

※ 자료 : Impact Databank

2007 세계 상위 15개 보드카 제품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5	2006	2007	06-07
1	SMIRNOFF	Diageo	21.4	22.6	24.3	7.6%
2	ABSOLUT	Pernod Ricard	9.2	9.9	10.7	8.8%
3	NEMIROFF	Nemiroff Vodka Co	9.3	7.8	9.1	16.5%
4	KHORTYTSA	Khortytza Distillery	3.9	8.1	8.3	2.5%
5	GREEN MARK	Russian Alcohol Group	5.0	7.3	8.1	11.0%
상위 5개 제품 소개			48.8	55.7	60.5	8.7%
6	SV	Soyuz-Victan	6.5	6.2	6.1	-2.5%
7	PUTINKA	Vinexim Group	6.8	5.1	5.4	5.0%
8	RUSSKIY RAZMER	ZAO Veda	3.9	4.4	4.3	-2.6%
9	ABSOLWENT	Polmos Bialystok	3.9	4.0	4.1	2.0%
10	KHLEBNAYA DOROGA	ZAO Veda	1.5	1.8	3.6	95.6%
상위 10개 제품 소개			71.4	77.3	84.0	8.6%
11	GREY GOOSE	Bacardi	2.3	3.0	3.6	20.0%
12	MEDOFF	Soyuz-Victan	3.4	3.6	3.4	-4.5%
13	STOLICHNAYA	SPI/Pernod Ricard	2.9	3.1	3.3	7.4%
14	FINLANDIA	Brown-Forman	2.1	2.3	2.9	-11.1%
15	SKYY	Skyy Spirit (Campari)	2.4	2.7	2.9	7.5%
상위 15개 제품 소개			85.8	93.0	100.2	7.7%
기타 제품			242.3	240.0	242.8	1.1%
총계			328.1	333.0	343.0	3.0%

※ 자료 : Impact Databank

가 프리미엄 보드카를 크게 앞서고 있다.

2007년 세계 상위 15개 프리미엄 보드카제품이 전년대비 평균 12%의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중 9개 제품이 10% 이상의 판매신장을 기록하였다.

최근 세계 보드카산업에는 큰 지각변동이 있었다. 바로 판매량 세계 2위 보드카 ‘엡솔루트(Absolut)’ 생산기업인 스웨덴의 V&S를 페르노리카(Pernod Ricard)가 인수에 성공한 것이다. 2007년 스웨덴 정부가 V&S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후 디아지오(Diageo), 바카디(Bacardi), 포춘브랜

드(Fortune Brands) 등 세계 메이저 주류업체들이 V&S 인수에 착수했으며 결국 52억 8,000만 유로를 제시한 페르노리카가 인수에 성공하였다.

엡솔루트는 세계 판매량 2위 프리미엄 보드카로 2007년 전 세계에서 1,070만상자가 판매되었으며, 2006년에 비해 판매량이 9%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엡솔루트는 미국시장에서만 500만상자 이상을 판매하며 미국내 최고의 프리미엄중 류주로 꼽히고 있으며, 창조, 혁신, 리더십을 상징하는 특별한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전 세계에서 600만상자가 판매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2007 상위 10개 프리미엄 보드카 소비국가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국 가	소 비 량			증 감(%)		시장점유율		
		2005	2006	2007	05-06	06-07	2005	2006	2007
1	미 국	47.4	50.4	52.9	6.4%	5.0%	58.2%	58.5%	57.6%
2	영 국	7.4	7.5	8.1	1.0%	8.0%	9.1%	8.7%	8.8%
3	브 라 질	4.6	4.7	5.0	1.5%	6.5%	5.7%	5.4%	5.4%
4	캐 나 다	3.7	3.9	4.2	6.0%	6.0%	4.6%	4.6%	4.5%
5	독 일	2.1	2.3	2.5	6.0%	12.5%	2.6%	2.6%	2.8%
상위 5개국 소계		65.2	68.8	72.7	5.4%	5.8%	80.2%	79.8%	79.2%
6	핀 란 드	2.3	2.3	2.4	0.4%	4.0%	2.8%	2.6%	2.6%
7	러 시 아	1.2	1.6	1.0	27.8%	30.0%	1.5%	1.8%	2.2%
8	프 랑 스	1.5	1.7	1.9	13.7%	9.5%	1.9%	2.0%	2.1%
9	남 아 공	1.6	1.6	1.6	-1.5%	3.5%	1.9%	1.8%	1.7%
10	스 페 인	1.2	1.3	1.3	2.5%	4.5%	1.5%	1.5%	1.5%
상위 10개국 소계		73.0	77.2	82.0	5.6%	6.2%	89.9%	89.5%	89.2%
기타국가		8.3	9.0	9.9	8.9%	9.4%	10.2%	10.5%	10.8%
총 계		81.4	86.2	91.8	6.0%	6.5%	100.0%	100.0%	100.0%

※ 자료 : Impact Databank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다른 메이저 주류업체들의 보드카사업 확장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 디아지오는 2008년 초 9억 달러를 투자하여 슈퍼 프리미엄 보드카인 '케텔 원(Ketel One)'의 지분 50%를 Nolet Company로부터 인수하였다. 케텔 원은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보드카로 2007년 약 200만병의 판매되었으며, 약 1억 6,5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핀란드 등 동유럽에 근간을 두고 있는 CEDC(Central European Distributing Corp)는 판매량 세계 5위 보드카 '그린 마크(Green Mark)'를 생산하고 있는 Russian Alcohol Group의 지분 42%를 1억 5,7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2008년 초 세계 보드카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세계 최대 프리미엄 보드카시장인 미국에서는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보드카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상위 4개 제품의 경우 전년에 비해 9.5%나 판매가 증가하였다. 디아지오의 '스미노프(Smirnoff)'는 압도적인 차이로 미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2008년 초 페르노리카에서 인수한 엠솔루트 역시 변화없이 2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바카디의 '그레이 구스(Grey Goose)'는 고급화전략을 앞세워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2006년 전년에 비해 판매량이 28.2%나 상승했던 그레이 구스는 2007년에도 25%나 증가하는 등 미국내 판매 3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과 동시에 미국내에서 가장 높은 판매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보드카의 본고장인 러시아의 경우 로컬 보드카의 판매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보드카의 6%만이 프리미엄

2007 상위 5개 보드카 제품 (미국)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2005	2006	2007	05-06	06-07
1	SMIRNOFF	Diageo	8.2	8.5	9.3	4.4%	9.1%
2	ABSOLUT	Pernod Ricard	4.7	4.9	5.2	3.7%	6.1%
3	GREY GOOSE	Bacardi	2.1	2.7	3.3	28.2%	25.0%
4	SKYY	Skyy Spirit (Campari)	2.1	2.3	2.4	10.2%	5.1%
5	STOLICHNAYA	Pernod Ricard	2.0	2.1	2.2	5.3%	4.5%
상위 5개 제품 소개			19.0	20.4	22.4	7.5%	9.5%

※ 자료 : Impact Databank

2007 상위 5개 보드카 제품 (러시아)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품명	제조사	판매량		증감(%)	시장점유율	
			2005	2006	06-07	2006	2007
1	GREEN MARK	Russian Alcohol Group	7.3	8.1	11.0%	5.0%	5.7%
2	PUTINKA	Vinexim Group	5.1	5.4	5.0%	3.5%	3.8%
3	SV	Soyuz-Victan	4.2	4.3	2.4%	2.9%	3.0%
4	RUSSKIY RAZMER	ZAO Veda	4.4	4.3	-2.6%	3.0%	3.0%
5	NEMIROFF	Trading House Nemiroff	3.7	3.9	6.0%	2.5%	2.7%
상위 5개 제품 소개			24.7	26.0	5.1%	16.9%	18.2%

※ 자료 : Impact Databank

보드카이며, 프리미엄 보드카를 생산하는 메이저 주류업체들은 러시아내 프리미엄 보드카시장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르노리카의 경우 프리미엄 보드카인 엡솔루트를 러시아내에서 700ml 병당 25달러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로컬 보드카가격(평균 3~4달러)에 비해 8배에 가까운 고가이지만, 2007년 125,000상자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페르노리카는 엡솔루트의 판매산장과 더불어 러시아의 프리미엄 보드카시장이 커질 것으로 믿고 있다.

러시아 최대의 주류기업중 하나인 러시아인 스탠다드(Russian Standard) 역시 프리미엄 보드카 시장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사의 러시아인 스탠다드 제품을 700ml병당 24달러에 판매하고

있다.

러시아내 판매량 1위 보드카는 Russian Alcohol Group의 그린마크로 2007년 810만상자가 판매되었다. 이는 2위인 'Putinka'에 비해 270만 상자나 많은 양이다. 한편 CEDC는 Russian Alcohol Group의 지분 42%를 인수한 데 이어 전체적인 회사운영권 확보를 위해 1억 달러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유럽에 근간을 두고 있는 CEDC는 러시아 뿐만 아니라 폴란드 보드카시장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사의 'Absolwent'는 폴란드 보드카시장 판매 1위이며, 프리미엄 보드카인 'bols' 역시 프리미엄 시장 선두를 지키고 있다. 동유럽 보드카시장의 또 다른 강자는 브라운포맨

2007 상위 4개 보드카 제품 (영국)

단위 : 백만상자 (1상자=9 Liter)

순위	제 품 명	제 조 사	판 매 량			증감(%)	
			2005	2006	2007	05-06	06-07
1	SMIRNOFF	Diageo	3.6	3.4	3.8	-4.8%	11.9%
2	GLEN'S	Glen Cartine	1.5	1.7	1.7	11.0%	2.1%
3	VLADIVAR	Maxxium UK	0.4	0.4	0.4	-1.0%	0.5%
4	ABSOLUT	Pernod Ricard	0.2	0.2	0.3	22.7%	50.0%
상위 5개 제품 소계			5.7	5.7	6.2	0.5%	8.0%

※ 자료 : Impact Databank

(Brown Forman)으로 자사의 ‘핀란드아 (Finlandia)’ 보드카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수입 프리미엄 보드카 중 최대 판매량을 지키고 있으며,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리투아니아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

서유럽에서는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서 보드카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디아지오의 스미노프가 2007년 382만 상자의 판매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글렌스(Glen's)’ (171만 상자), ‘블라디바르 (Vladivar)’ (40만 상자), ‘엡솔루트(Absolut)’ (33만 상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독 일 에 서 는 Henkell & Sohnlein의 ‘Gorbatschow’ (128만 상자)가 2위인 엡솔루트 (32만 상자) 보다 4배나 많이 판매를 기록하며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뒤로는 스미노프(25만 상자), ‘Moskovskaya’(23만 상자), ‘Boris Jelzin’ (20만 상자)이 각각 3~5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위스키를 선호하는 국가이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주류시장답게 보드카 판매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인도의 보드카 소비량은 403만 상자로 전년에 비해 27.5%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5년 총 판매량의 두배에 가까운 양이다. 인도에서는 자국 최대 주류업체인 UB Group(United Breweries) 산하 United Spirits에서 생산중인 ‘White Mischief’ (126만 상자)와 ‘Romanov’ (98만 상자)가 각각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3위는 Radico Khaitan의 ‘Magic Moments’ (61만 상자)이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보드카인 엡솔루트가 2007년 4만 상자밖에 팔리지 않았을 정도로 중국의 경우 아직 보드카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보드카와 유사한 White-Spirit인 바이주(백주)에 익숙한 중국인들의 음주습관을 감안할 경우 중국은 보드카 제조업자들에게 있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이다.